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ng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Public Library in Busan Metropolitan City

박 재 용(Jae-Yong Park)*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자료수집 및 연구설계
Ⅳ.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향후 발전방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일반적 이용현황은 대부분 소설대출이나 개인공부를 목적으로 방문하고, 도서관관련 정보나 행사는 오프라인을 통한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사용기간이나 웹사이트 방문빈도는 낮았으나, 컴퓨터 설치확대와 홈엑세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DB의 기술개선을 요구하였다. 셋째,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서비스중요성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도서관 운영지표 중 지역서비스의 중요성(m=3.86)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참고데스크(m=2.87), 체크아웃데스크(m=2.41), 컴퓨터가용성(m=2.47) 및 최신자료유용성(m=2.64)에서는 평균값이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운영정책이 실질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정책, 운영현황, 발전방향, 부산시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find a direction of development through operating status survey of public library in Busan metropolitan city. First, Normally library users visit the library to check out books or to have a private study session. Also users normally obtained information about upcoming events done in the library through using offline search methods. Second, although the usage of the website was low, however the users demanded the increase in computer numbers in the library and online database for home access. Third, the users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library to their local community. Library policy indicator rated high in importance to the local community(m=3.86). However the reference desk(m=2.87), checkout desk(m=2.41), computer availability(m=2.47), as well as up-to-date artifact availability(m=2.64) did not reach the average point of 3.0. Thus, revealing that the public library's management policies were not sufficient enough to satisfy the needs of the library users.

Keywords: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Policies, Operating Status, Development Direction, Busan Metropolitan City

* 신라대학교 상경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jypark@silla.ac.kr)
• 접수일: 2012년 8월 28일 •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13일 • 최종심사일: 2012년 12월 26일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방대한 지식정보자원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공기관이다. 이제 도서관은 지식정보센터로서 단순히 책을 읽거나 자료를 소장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복합다문화공간, 지역공동체 구심점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보장장치로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은 물론 공공도서관 정책에도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나 이용자들의 정보자원이용의 편의성, 유효성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도서관 운영 효율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도서관의 정체성과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아웃소싱, 위탁 경영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학계나 도서관계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운영정책상 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가 실시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도서관의 관종별 평가지표가 개발되는 등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이에 즈음하여 최근에는 공공도서관을 관할 교육청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하는 추세이고, 경기도는 공공도서관의 90%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17년까지 총 1,740억원을 투입해 현재 185개의 공공도서관을 500개로 늘리고, 1인당 장서수도 현재 1.7권 수준에서 2.5권으로 늘리는 "경기도 도서관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2)]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는 지난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사항에는 "부산시 공공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부산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속의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을 입법예고 하여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3)]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발표에 의하면 부산시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4)] 부산시는 이러한 취약한 지역별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2011년 1월 부산지역 27개관 "공공도서관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산시민 도서관 회원카드 하나로 모든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가능도록 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5)]

---

1) 차성종,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8권, 제1호(2011. 3), p.286.
2) 세계 속의 경기도. 〈http://blog.naver.com/hoho9024?Redirect=Log&logNo=80171568683〉 [cited 2012. 10. 12].
3) 부산광역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 입법예고. 〈http://blog.naver.com/postit3?Redirect=Log&logNo=110108624485〉 [인용 2012. 5. 12] 〈서점신문 2011년 4월 8일자 제243호 1면 참조〉.
4)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발표." 〈http://www.libsta.go.kr/potal/bbsMng.do?task=get&brd_seq=2111&url_sctn=potal&brd_sctn=N1&row_no=1〉 [인용 2012. 5. 12].

그러나 최근 최항순, 한창구의 공공도서관의 성과평가 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시설운영의 효율성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도서관경영자의 관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나 이용자 관점에서 운영만족도로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 또한 부산시를 제외한 장지숙 외 3인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의 공공도서관 정책분석 결과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부산시도 외형중심의 도서관건립에 치중한 도서관 정책에서 지역주민이나 이용자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부운영관리중심의 정책개발에 관심을 기울려야 할 때이다.[7]

따라서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취약한 현실과 기존 연구들 중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및 정책분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의 공공도서관 관련정책과 운영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법적·제도적, 인프라 확충 및 정보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정책제언을 함에 연구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으로 먼저 2011년~2012년 부산시의 공공도서관 관련 계획 및 도서관현황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현행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운영현황을 실질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부산시 공공도서관 관련 정책과 사업계획 파악을 위하여 부산시는 물론 16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장기발전계획과 2012년 업무계획 내용 검토와 함께 문헌연구를 하였다. 아울러 부산시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평가를 위한 연구자료 수집은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수집자료의 통계분석은 PASE Statistics 18을 이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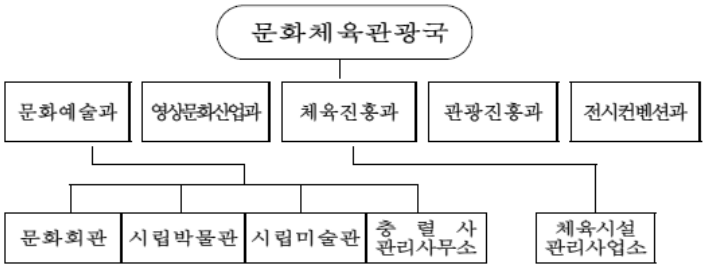
1. 부산시 공공도서관 관련 조직 및 사업계획

1.1 조직, 인력 및 예산계획

부산시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조직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과 5사업소로 구성되며, 총

5)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이란," 〈http://www.siminlib.go.kr/〉 [인용 2012. 5. 12].
6) 최항순, 한창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성과평가지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2호, (2009. 9), p.66.
7) 장지숙, 송경진, 이진우, 차미경,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정책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2호(2010. 6), p.18.

406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문화예술과는 총 29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등의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문화예술과의 2012년 행정문화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문화시설 현황은 공연장 68개, 박물관 13개, 미술관 4개, 시립도서관 36개, 문화관 14개, 영화관 30개 등이 있다.[8] 이처럼 공연장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이 문화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문화예술분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림 1〉 문화체육관광국의 조직도

이에 따라 부산시 공공도서관 업무는 문화예술과 총 29명 인력 중 문화정책 담당직원 2명을 배치하여 공공도서관 정책, 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대표 도서관, 작은 도서관은 물론 사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과 각종 생활문화 행사 사업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의 문화체육관광국의 2012년도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국의 총예산 약 4,235억 6,600만원 중 문화예술과에는 약 770억 7,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9] 그러나 공공도서관에 대한 년간 예산은 별도로 공시되지 않고 사업추진계획 사항으로만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장지숙 외 3인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서관 정책을 독립적인 단위정책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문화예술 등의 자치사무의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10]

1.2 년간 공공도서관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부산시의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사업은 2011년 발표된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과 연계되어 주로 도서관 시설확충, 인프라 구축, 정보서비스 및 장서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8)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 7. 20. p.1.
9) 상게서, p.1.
10) 장지숙, 송경진, 이진우, 차미경, 전게논문, p.27.

부산시는 "함께 누리는 품격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정책목표 속에 ① 생활 속 문화 향유기반 조성, ② 품격있는 축제문화 육성, ③ 아시아 영상・문화산업 중심도시 조성, ④ 전시・컨벤션산업선진화, ⑤ 다양한 생활 체육환경 조성, ⑥ 사계절 명품 국제관광도시 조성의 6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11]

이 중 "생활 속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으로 ① 문화인프라 확충, ②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단체간 협력강화, ③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 ④ 전통문화유산 보존 전승 등이 있다. 특히, "문화인프라 확충"에서 '도서관건립추진'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이 계획, 추진되고 있다.

먼저, 강서도서관은 부산시 재정지원으로 2012년 12월 완공 및 개관 목표로 건립 중이며, 연제도서관은 기부채납형식・정관도서관은 BTL방식・장안, 일광, 동래 도서관은 부산시 재정지원으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12]

그리고 부전도서관은 BTO방식으로 재건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하여 2013년 1월에 착공예정이며, 남항동 작은도서관, 신평1동・디딤・연지동 작은 도서관을 6월, 7월에 각각 개관하였고, 4개구에 작은도서관 추가조성 건립을 위해 약 6억 3,4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두고 있다.[13][14]

아울러 '도서관 건립추진'사업 이외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시민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이 계획, 추진되고 있다.[15] 즉, 지역출판사와 서점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공동추진으로 2012년 가을독서문화축제 개최하고,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도서 및 독서프로그램 등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북카페 6개소 추가설치 운영을 계획,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9억 6,000만원 및 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5억 4,300만원 등이 배정되어 있다.[16]

2. 부산시의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벡스코(BEXCO)를 이용한 많은 국제컨벤션 유치 등 동북아 문화・과학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17] 부산시 문화, 예술, 과학 및 정보도시 인프라의 주요지표가 되는 부산시

11)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전게서, p.10.
12) BTL방식(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새로운 개념의 민자유치제도이다.
13)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이라 하며, 이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직접 사용자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등의 수익방식이다.
14) 영도구, 사하구, 서구, 부산진구 4개구이다.
15)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전게서, p.13.
16) "문화예술활동지원 및 독서문화진흥관련 사업"으로 도시철도북카페 2곳(수정역, 온천장역)을 2012년 6월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현황은 2010년 말 기준으로 공립 29개관(시립 14개관, 구, 군립 15개관), 사립 1개관과 작은 도서관 57개소(시립 조성 36개소, 구, 군 조성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 2013년 개관을 목적으로 현재 건립 추진 중인 2개관(정관, 장안)이 있다.[18]

그러나 부산시 공공도서관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 중구나 동구의 경우 봉사대상인구가 1개관당 약 5만명으로 정부가 목표로 추진하는 인프라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남구는 30만명이 넘고, 동래구의 경우도 28만명이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인프라의 불균형은 지역주민의 연간 도서관 이용횟수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구 주민 1명은 도서관을 연간 12회 이용하는 반면, 동래구 주민의 경우 연간 1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의 인프라가 지역주민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부산시 공공도서관은 부산시민 1인당 약 1권정도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 1개관이 약 14만명의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5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19][20][21] 이는 경기도의 현재 1인당 장서수 1.7권에도 미치지 못하며, 공공도서관의 수도 185개의 경기도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숫자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윤희윤은 부산시 도서관 및 문화지수의 현주소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수준을 주요 문화선진국, 국내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로 비교 분석한 바 있다.[22] 연구결과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봉사대상인구는 선진국의 2배 이상, 소장 책 수는 6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 1개관당 봉사대상인구, 정규직원 1인당 봉사부담인구, 인구 1인당 연간 소장책수 및 대출책수, 인구 1천명당 정기 프로그램 참가자수 측면에서도 16개 광역시 가운데 10위에서 14위로 하위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3.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영관련 선행 연구

최근까지의 공공도서관 운영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국가적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 최항순, 한창구는 성남시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의 직영과 민간위탁에 관한 경영효율성을 BSC지표를 통해 공공도서관 성과평가지표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23]

---

17) 부산광역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2011). 〈http://www.busan.go.kr/open_content/2020vision_new/main.html〉 [인용 2012. 3. 21].
18) 박재용, "공공기관 정보자료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영정책에 관한 연구," 실천경영연구, 제6호, 제1권(2011. 3), p.5.
19)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산시의 인구는 남자 1,783,378명, 여자 1,802,701명으로 총 3,586,067명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작성, 발표하였다.
20) 3,687,306권/3,586,067명 = 약1.02권.
21) 박재용, 전게논문, p.5.
22) 윤희윤,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성과와 한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9), pp.25-44.

윤희윤은 서울과 인천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재단 설립과 경영위탁을 논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운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고,[24] 이어 장지숙 외 3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도서관 관련 정책내용과 어떤 유형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25][26] 그러나 장지숙 외 3인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홈페이지에 중장기발전계획 또는 2010년 업무계획을 공개한 자치단체는 총 15곳으로써 전체 조사대상의 93.8%였고, 그 중 도서관관련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12개 광역자치단체로써 부산은 제외되어 있었다.[27]

또한, 김선애는 2010년 6월 실시한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후보들을 대상으로 각종 도서관 관련 공약사항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28] 분석결과는 장지숙 외 3인의 연구결과와 같이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에 치중한 외형적 성과와 관련된 공약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산시 광역단체장 후보 2명 중 아무도 도서관 관련 공약제시 설문에 응답하지 않아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29]

그리고 이재호, 김도희의 울산시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의 운영정책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이는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서비스 개선항목을 탐색한 것이었다.[30] 여기서는 울산지역의 모든 도서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행정체계를 개선하여 도서관 대민서비스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최근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연구로서, 문경주는 DEA모형을 이용하여 부산지역 21개 공공도서관을 교육청과 지자체소속으로 나누어 운영주체별 효율성을 측정한 바 있다.[31] 여기서는 인력, 예산, 장서수, 면적을 기준으로 이용자수와 대출권수의 증가여부를 통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측정한 것으로 지역주민이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시 공공도서관 이용자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운영현황이나 정책내용에 대한 사례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

23) 최항순, 한창구, 전게논문, pp.45-69.
24) 윤희윤,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의 사도와 정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3호(2010. 9), pp.5-24.
25) 장지숙, 송경진, 이진우, 차미경, 전게논문, pp.15-28.
26) 상게논문, p.18.
27)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의 12곳이다.
28) 김선애,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도서관분야 공약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1호(2011. 3), pp.155-170.
29) 상게논문, p.161.
30) 이재호, 김도희, 전게논문, pp.25-46.
31) 문경주,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부산지역 21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2호(2009. 8), pp.59-92.

Ⅲ. 자료수집 및 연구설계

1. 설문모형도출과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문모형은 미국뉴멕시코주립도서관(NMSL: New Mexico State Library)에서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정책설문모형의 34항목(일반사항 11항목, 기술사항 5항목, 지역사회 13항목, 인구통계 5항목)을 장지숙 외 3인의 연구내용에 기반하여 도서관 건립 2문항, 도서관협력시스템 1문항 등 정책현황 관련내용과 차성종의 연구내용 중 도서관이용목적 1문항 시설 2문항, 온라인서비스 1문항 등을 추출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설문항목을 재구성하였다.[32)33)34)] 그리고 설문항목의 번역, 해석상 오류에 대한 수정, 보완을 위하여 사전설문지를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를 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은 PASE Statistics 18을 이용하였으며, 먼저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표본의 특성을 빈도분석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교차분석을 이용한 이용현황에 대한 성별집단간 빈도분석, 명목척도로 측정된 문항들의 성별간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X^2) 독립성 검증(chi-square independence)을 실시하였다. 등간척도로 측정된 운영평가항목들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설문의 구성 및 측정척도

본 연구의 설문항목 구성은 이용자들의 이용현황과 인식에 대한 일반운영사항 3문항, 기술개선사항 3문항, 지역사회평가 3문항, 운영평가사항 5문항 등으로 총 19개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 설문항목 구성과 같다.

설문 문항의 설계는 명목척도와 리커트(Likert)의 5점 척도인 등간척도를 각 문항의 특성에 맞도록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등간척도의 경우는 그 인식 정도가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경우를 최고 5점으로 배점하였고, 해당항목의 인식의 정도에 따라 1점씩 차이를 두어 "매우 낮다"고 응답한 경우를 최저 1점으로 배점하였다.

---

32) New Mexico State Library Homepage, 〈http://www.nmstatelibrary.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06&Itemid=104〉 [cited 2011. 10. 16].
33) 장지숙, 송경진, 이진우, 차미경, 전게논문, p.19.
34) 차성종, 전게논문, p.292.

〈표 1〉 설문항목 구성

설문내용	설문항목	문항수	척 도
일반운영사항	이용목적, 정보자료검색, 행사정보매체	3	명목척도
기술개선사항	기술개선, 웹사이트방문빈도, 온라인서비스	3	명목척도
지역사회평가	지역서비스 중요성, 서비스개선부담금, 도서관신축부담금	3	명목척도
운영평가사항	참고데스크, 체크아웃, 컴퓨터가용성, 서비스중요성, 최신자료유용성	5	등간척도
인구통계사항	성별, 연령, 학력, 인터넷설치, 사용시간	5	명목척도

3. 자료수집 및 설문배포현황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립의 공공도서관은 29곳이며, 이중 부산시의 대표도서관 2곳을 표본집단으로 설정했다.[35][36] 이에 무작위표본 추출된 공공도서관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94부(48.5%)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분석 불가능한 응답자 16부를 제외한 78부(39.0%)를 유효한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Ⅳ.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부산시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주요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 41명(52.6%), 여자 37명(47.4%)으로 각 집단별로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14명(17.9%), 20대 18명(23.1%), 30대 26명(33.3%)이고, 40대 15명(19.2%), 50대 5명(6.4%)으로 주로 20~30대가 많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분류한 결과는 고졸이하 18명(23.1%), 고졸 12명(15.4%), 대재 및 대졸 43명(55.1%)이고, 대학원 5명(6.4%)으로 대학생이나 대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모든 가정에 인터넷을 설치하여 총 66명(84.6%)이 하루 평균 2-3시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5) 부산시립은 14개관이며, 각 행정자치구, 군에서 건립한 15개관으로 공립도서관은 총 29개관이다.
36) 표본의 적합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부산지역 지정대표도서관 1곳과 부산광역 공공도서관 중 가장 이용자가 많은 도서관 1곳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분석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운영현황 분석은 표본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학력 등 다른 특성보다 성별 특성이 집단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더 유의미하므로 성별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 일반운영사항의 분석결과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사항 중 이용자들의 주된 이용목적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의 경우 "소설이나 최신서적을 대출"이 14명(17.9%)이었고, "개인공부"가 10명(12.8%), "자료참조 및 연구"가 10명(12.8%)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도 "소설이나 최신서적을 대출"이 17명(21.8%)이었고, "개인공부"가 7명(9.0%)으로 나타나 전체이용자들의 61.5%가 최신소설 대출이나 개인적인 학업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도서관의 주된 이용목적의 교차분석

항목 및 척도			도서관의 주된 이용목적							전체
			소설대출	참조연구	자녀이용	CD대출	잡지신문	출판물	개인공부	
성별	남	빈도	14	10	1	1	2	3	10	41
		전체 %	17.9%	12.8%	1.3%	1.3%	2.6%	3.8%	12.8%	52.6%
	여	빈도	17	6	2	2	3	0	7	37
		전체 %	21.8%	7.7%	2.6%	2.6%	3.8%	.0%	9.0%	47.4%
전체		빈도	31	16	3	3	5	3	17	78
		전체 %	39.7%	20.5%	3.8%	3.8%	6.4%	3.8%	21.8%	100.0%

* 카이제곱 값 5.496a, 자유도 6,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482, 유효케이스수 78

이는 이재호, 김도희의 연구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아직도 공공도서관의 이용목적이 중, 고등학생 또는 일부 대학생들의 시험공부 장소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37]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개인적인 학습공간이나 단순히 소설이나 서적을 대출받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가족단위의 문화여가시설의 활용차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용목적이나 동기에 성별간의 인식의 차이가 독립적인지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 $X^2=5.496$, $p=0.482$로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남으로써 공공도서관 이용목적에는 성별차이가 없이 모두 동일한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이재호, 김도희,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3권, 제4호(통권 37호), (2012. 2), p.31.

그리고 공공도서관에서 정보자료검색 성공빈도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남자의 경우 "항상 찾음"은 4명(5.1%)이었고, "대부분 못찾음"이 9명(11.5%)이었고 "때때로 찾음"이 28명(35.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도 "항상 찾음"은 4명(5.1%), "대부분 못찾음"이 2명(2.6%)이었고 "때때로 찾음"이 31명(39.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3〉 정보자료검색 성공빈도의 교차분석

항목 및 척도			정보자료검색 성공빈도			전체
			항상찾음	때때로찾음	못찾음	
성별	남	빈도	4	28	9	41
		전체 %	5.1%	35.9%	11.5%	52.6%
	여	빈도	4	31	2	37
		전체 %	5.1%	39.7%	2.6%	47.4%
전체		빈도	8	59	11	78
		전체 %	10.3%	75.6%	14.1%	100.0%

* 카이제곱 값 4.414a, 자유도 2,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110, 유효케이스수 78

이 또한 정보자료검색의 성공빈도에 각 성별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 X^2=4.414, p=0.110로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남녀 모두 정보자료검색시 원하는 자료를 항상 찾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차성종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신간정보 획득의 용이성' 항목이 매우 낮은 수준(62.7점)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38]

이는 현재 각 공공도서관의 검색시설 및 정보시스템의 수준이 낮다기 보다는 이용자들의 정보자료검색 능력부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각 공공도서관에서는 전문사서들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자료검색 및 관련 이용자 교육 정책실시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도서관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강좌프로그램 및 행사정보는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남자의 경우 "직원이나 도서관 게시판을 통한 간행물"이 19명(24.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다음으로 "친구나 학교교사"가 11명(14.1%)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도 "도서관 직원이나 게시판을 통한 간행물"을 통한 경우가 25명(32.1%) 이었고, "친구나 교사"가 9명(11.5%)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 모두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안내가 "도서관 직원/게시판"의 이용이 44명으로 전체의 56.4%, "친구/교사"를 통한 20명의 25.6%로 전체적으로 64명인 82%가 오프라인(off-line)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이용이 아닌 오프라인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8) 차성종, 전게논문, p.301.

〈표 4〉 도서관 행사인식의 교차분석

항목 및 척도			도서관 행사정보매체				전체
			친구/교사	직원/간행물	지역간행물	웹사이트	
성별	남	빈도	11	19	3	8	41
		전체 %	14.1%	24.4%	3.8%	10.3%	52.6%
	여	빈도	9	25	3	0	37
		전체 %	11.5%	32.1%	3.8%	.0%	47.4%
전체		빈도	20	44	6	8	78
		전체 %	25.6%	56.4%	7.7%	10.3%	100.0%

* 카이제곱 값 8.836a, 자유도 3,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032, 유효케이스수 78

2) 기술개선분야의 분석결과

각 집단별로 향후 공공도서관의 기술개선 희망분야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남자는 "홈엑세스"가 15명(19.2%)으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설치확대"가 12명(15.4%)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라인 DB확대"가 10명(12.8%)이었다. 여자의 경우는 "홈엑세스"가 21명(26.9%), "컴퓨터 설치확대"가 11명(14.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컴퓨터 성능이나 인터넷 접속속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용자는 남자 4명(5.1%), 여자 2명(2.6%)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5〉 기술개선분야의 교차분석

항목 및 척도			기술개선 희망분야				전체
			컴퓨터확대	접속속도개선	홈엑세스	온라인DB	
성별	남	빈도	12	4	15	10	41
		전체 %	15.4%	5.1%	19.2%	12.8%	52.6%
	여	빈도	11	2	21	3	37
		전체 %	14.1%	2.6%	26.9%	3.8%	47.4%
전체		빈도	23	6	36	13	78
		전체 %	29.5%	7.7%	46.2%	16.7%	100.0%

* 카이제곱 값 5.288a, 자유도 3,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152, 유효케이스수 78

또한 기술개선 희망분야에 대한 성별집단간의 인식차이를 살펴 본 결과, $X^2=5.288$, $p=0.152$로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비유의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여모두 컴퓨터시설 투자확대를 통해,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및 정보검색을 현재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현재 공공도서관 내에서 이용 가능한 컴퓨터 대수가 일일 이용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등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그리고 도서관 웹사이트 방문빈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6〉과 같다. 즉, 남자의 경우 "6개월에 한번" 14명(17.9%), "방문않음" 17명(21.8%), "1개월에 몇 번" 9명(11.5%)로 전체적으로 방문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도 "6개월에 한번" 20명(25.6%), "방문않음" 5명(6.4%), "1개월에 몇 번" 10명(12.8%)등 으로 나타났다.

〈표 6〉 웹사이트 방문빈도의 교차분석

항목 및 척도			웹사이트 방문빈도				전체
			1주일 몇번	1개월 몇번	6개월 한번	무방문	
성별	남	빈도	1	9	14	17	41
		전체 %	1.3%	11.5%	17.9%	21.8%	52.6%
	여	빈도	2	10	20	5	37
		전체 %	2.6%	12.8%	25.6%	6.4%	47.4%
전체		빈도	3	19	34	22	78
		전체 %	3.8%	24.4%	43.6%	28.2%	100.0%

* 카이제곱 값 7.806a, 자유도 3,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050, 유효케이스수 78

아울러 성별간 웹사이트 방문빈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 본 결과, X^2=7.806, p=0.050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웹사이트 방문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의 사용기간에 대한 조사결과는 남자의 경우 "1개월~6개월"이 26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6명(7.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개월~6개월"이 24명(30.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1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9명(11.5%)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1년 이상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본 조사에서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성종의 연구에서 온라인서비스(66.3점)가 시설(82.2점)이나 장서(77.3점)에 대한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39] 특히, 이 같은 결과는 도서관전산화의 초기인 1992년부터 부산시가 이에 주력하였고, 2003년부터는 디지털자료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투자로 "공공도서관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을 비롯한 온라인DB서비스에 대한 많은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교육과 홍보부족의 결과로 해석된다.[40]

39) 상게논문, p.297.
40)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부전도서관 연혁," 〈http://www.bjl.go.kr/content/?m1=01&m2=02〉 [인용 2012. 6. 10].

3) 지역사회 평가의 분석결과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와 내부시스템 개선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7〉 지역사회 서비스의 중요도 교차분석

항목 및 척도			지역사회 서비스의 중요도				전체
			불필요	보통	중요	매우중요	
성별	남	빈도	3	11	18	9	41
		전체 %	3.8%	14.1%	23.1%	11.5%	52.6%
	여	빈도	1	9	19	8	37
		전체 %	1.3%	11.5%	24.4%	10.3%	47.4%
전체		빈도	4	20	37	17	78
		전체 %	5.1%	25.6%	47.4%	21.8%	100.0%

* 카이제곱 값 1.084a, 자유도 3,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781, 유효케이스수 78

즉,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역할과 서비스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항목에서 남자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 9명(11.5%), "중요하다" 18명(23.1%)로 전체적으로 중요한 인식을 하는 경우가 27명(34.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도 "매우 중요하다" 8명(10.3%), "중요하다" 19명(24.4%)으로 나타남으로써 전체적으로 54명인 69.2%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에 대한 성별 집단간의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X^2=1.084, p=0.781로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비유의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여 모두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서비스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재호, 김도희 연구에서 지역공공도서관은 "시민의식 함양(평균값=4.36)"과 "도시발전에 긍정적 영향"(평균값=4.30)을 줄 것이라는 요인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41]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 내부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가?"라는 조사결과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의 경우 "예"라는 응답한 11명(14.1%)보다 "아니오"가 30명(3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도 "예"라는 응답한 11명(14.1%)보다 "아니오"가 26명(33.3%)로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남여의 71.8%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지역사회에서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개인별 추가세금이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42]

41) 이재호, 김도희, 전게논문, p.42.

또한, "공공도서관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개인적인 비용이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남자의 경우 "예"가 23명(29.5%) "아니오" 18명(23.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 19명(24.4%) "아니다" 18명(23.1%)로 나타났다. 이는 근소한 차이이지만 53.8%가 남녀모두 공공도서관 건물을 신, 증축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세금이나 비용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남여간 차이없이 인식하고 있고, 지역 공공건물 신축 등의 공익·복지·문화사업의 직, 간접적인 참여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내부서비스 개선과 건축 세금부담의 교차분석

항목 및 척도			서비스개선세금부담		전체	건물신축 세금부담		전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성별	남	빈도	11	30	41	23	18	41
		전체 %	14.1%	38.5%	52.6%	29.5%	23.1%	52.6%
	여	빈도	11	26	37	19	18	37
		전체 %	14.1%	33.3%	47.4%	24.4%	23.1%	47.4%
전체		빈도	22	56	78	42	36	78
		전체 %	28.2%	71.8%	100.0%	53.8%	46.2%	100.0%

* 카이제곱 값 0.081a, 자유도 1,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776, 유효케이스수 78
* 카이제곱 값 0.176a, 자유도 1,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675, 유효케이스수 78

3. 공공도서관 운영평가항목 분석결과

〈표 9〉 공공도서관 운영평가항목별 집단평균분석

항목 및 척도		참고데스크	체크아웃데스크	컴퓨터가용성	서비스중요성	최신자료유용성	비 고
남	평균	3.10	2.49	2.49	3.80	2.73	
	표본수	41	41	41	41	41	
	표준편차	.831	.746	.675	.872	.501	
여	평균	2.62	2.32	2.46	3.92	2.54	
	표본수	37	37	37	37	37	
	표준편차	.721	.747	.691	.759	.558	
전체	평균	2.87	2.41	2.47	3.86	2.64	
	표본수	78	78	78	78	78	
	표준편차	.812	.746	.679	.817	.534	

42) 상게논문, p.51, 예로써 도서관이용료, 대관료, 주차비, 유료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부산시립도서관의 경우 2012. 11. 12. 부터 주차장 유료화 정책을 시행예정이다.

앞에서 살펴 본 이용자인식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항목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우선 "참고데스크의 만족도"는 남자평균 3.10(st.d=0.831), 여자평균 2.62(st.d = 0.721)로 남자평균값이 0.48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집단간의 평균값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분석결과 F값=7.230, 유의확률=0.009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나 성별 집단간에 참고데스크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공공도서관 운영평가항목별 일원분산분석표

항목 및 척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참고데스크 * 성별	집단-간	4.405	1	4.405	7.230	.009**
	집단-내	46.312	76	.609		
	합계	50.718	77			
체크아웃데스크 * 성별	집단-간	.520	1	.520	.933	.337
	집단-내	42.352	76	.557		
	합계	42.872	77			
컴퓨터가용성 * 성별	집단-간	.016	1	.016	.034	.855
	집단-내	35.433	76	.466		
	합계	35.449	77			
서비스중요성 * 성별	집단-간	.253	1	.253	.375	.542
	집단-내	51.196	76	.674		
	합계	51.449	77			
최신자료유용성 * 성별	집단-간	.711	1	.711	2.543	.115
	집단-내	21.238	76	.279		
	합계	21.949	77			

이는 차성종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로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공공도서관 이용시 참고데스크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43] 이는 사서들의 성별에 따른 서비스 질과 양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로 통하여 사서교육, 내부시스템 개선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체크아웃 데스크의 만족도" 대한 조사결과는 남자평균 2.49(st.d=0.746), 여자평균 2.32(st.d=0.747)로 남자평균값이 0.17 높게 나타났으나, 그러나 전체평균이 2.41로 매우 낮다. 일원분산분석 결과에서도 F값=0.933, 유의확률=0.337으로 p〈0.05수준에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성별집단간에 만족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남녀모두 체크아웃데스크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 공공도서관들은 체크아웃은 물론 대출데스크 등 많은 부분에서

43) 차성종, 전게논문, p.296.

자동화됨으로써 사서와의 면대면 접촉이나 조력이 줄어들면서 중요도 인식이 낮아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컴퓨터 가용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남자평균 2.49(st.d=0.675), 여자평균 2.46(st.d=0.691)로 집단간에 평균값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전체적인 평균값이 2.4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의 기술개선에 따른 〈표 5〉의 교차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온라인DB 확대나 홈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의 시설투자보다는 공공도서관내에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설치확대'를 남녀모두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 역할과 서비스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남자평균 3.80(st.d=0.872), 여자평균 3.92(st.d=0.759)로 여자평균값이 0.12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평균값도 3.8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을 통한 차이분석결과 F값=0.375, 유의확률=0.542으로 $p<0.05$수준에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남녀간의 차이없이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재호, 김도희 연구에서 지역공공도서관은 "시민의식 함양(평균값=4.36)"과 "도시발전에 긍정적 영향"(평균값=4.30)을 줄 것이라는 요인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결과와 동일하다.[44]

마지막으로 "최신자료의 유용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남자평균 2.73(st.d=0.501), 여자평균 2.54(st.d=0.558)로 남자평균이 0.19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평균값이 2.64로 낮았다. 이 같은 분석결과도 차성종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66.3점)를 제외하면 장서의 최신성(76.0점)과 충분성(77.3점)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45] 이는 공공도서관에서 편성, 집행한 장서정책 및 구비자료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시기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항순, 한창구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성과평가지표를 관리적 관점에서 도서관건립, 재정, 서비스, 장서관리, 시설 등으로만 평가하고 이용자나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항목은 배제되어 있음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Ⅴ. 요약 및 결론

지식정보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정보접근성과 가용성을 높이고, 지역커뮤니티 센터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변화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에 부산시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한 주요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44) 이재호, 김도희, 전게논문, p.42.
45) 차성종, 전게논문, p.297.

공공도서관의 운영현황 평가를 위해 다양한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다른 항목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지역서비스의 중요성" 항목이 남녀 전체 평균값이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녀집단의 구별없이 모두 공공도서관을 지식정보센터는 물론 다문화·복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사회적 현상의 변화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평가항목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추가적인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고데스크 만족도" $F=7.230$ ($p=0.009<0.01$)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체크아웃 데스크만족도" $F=0.933$ ($p=0.337>0.05$), "컴퓨터가용성" $F=0.034$ ($p=0.855>0.05$), "지역서비스 중요성" $F=0.375$ ($p=0.542>0.05$)및 "최신자료 유용성" $F=2.543$ ($p=0.115>0.05$) 항목에서는 모두 비유의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참고데스크"는 성별에 따라 서비스 평균차이($m=0.51$, 0.48)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체크아웃데스크", "컴퓨터가용성", "공공도서관의 지역서비스 중요도" 및 "최신자료의 유용성"에 대하여는 남녀간의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지역서비스의 중요성"의 전체평균값($m=3.86$)을 제외하고는 다른 평가항목에서는 모두 "보통($m=3.00$) 수준" 이하의 값($m=2.41\sim2.87$)으로 나타남으로써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정책과 내부관리시스템에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에서의 높아진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내부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높은 정보서비스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는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의 하드웨어 중심의 외형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용자편익 관점에서 효율적인 내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에 역점을 두고 사업계획 수립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장지숙 외 3인의 정책검토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관련정책을 도서관건립이나 위탁 및 직영 등의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보다는 이용자편익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내부관리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책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산시 고유의 공공도서관 운영정책개발이 요구된다.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도서관 관련정책과 사업들이 유사하다. 따라서 부산시는 컴퓨터 시설확대, 이용자 교육과 홍보, 가족단위 문화시설활용 프로그램 개발, 최신장서 개발, 정보서비스 질 개선 등 부산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지숙 외 3인의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부산시는 공공도서관업무를 문화예술정책의 일부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원을 충원, 배치하여 시민의 도서관 운영에 대한 관심과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도서

관이용자들은 도서관 신, 증축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및 검색이용의 편의성 등 기술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를 부산시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즉,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한 설문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별, 연령대별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된 데이터의 왜곡의 한계를 안고 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표본크기가 30이상이면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표본으로 해석상의 무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표본집단이 부산지역의 총 29곳 공공도서관 중 사례 2곳으로 제한되어 있고, 총표본 200개 중 약 37%에 해당하는 78개의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설립주체별, 운영주체별 또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애.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도서관분야 공약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1호(2011. 3), pp.155-170.

문경주.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부산지역 21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2호(2009. 8), pp.59-92.

박재용. “공공기관 정보자료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영정책에 관한 연구.” 실천경영연구, 제6호, 제1권(2011. 3), pp.1-19.

윤희윤.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의 사도와 정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3권(2010. 9), pp.5-24.

_____.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성과와 한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권(2011. 9), pp.25-44.

이재호, 김도희.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정책에 대한 연구 : 울산광역시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항목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3권, 제4호(통권 37호), (2012. 2), pp.25-46.

장지숙, 송경진, 이진우, 차미경.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정책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2권(2010. 6), pp.15-28.

차성종.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8권, 제1호(2011. 3), pp.285-308.

최항순, 한창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성과평가지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2호(2009. 9), pp.45-69.

New Mexico State Library Homepage, 〈http://www.nmstatelibrary.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06&Itemid=104〉 [cited 2011. 10. 16]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발표." 〈http://www.libsta.go.kr/potal/ bbsMng.do?task=get&brd_seq=2111&url_sctn=potal&brd_sctn=N1&row_no=1〉 [인용 2012. 5. 12].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부전도서관 연혁." 〈http://www.bjl.go.kr/content/?m1=01&m2=02〉 [인용 2012. 6. 10]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이란." 〈http://www.siminlib.go.kr/〉 [인용 2012. 5. 12].

부산광역시. 부산발전연구원. (2011).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http://www.busan.go.kr/open_content/2020vision_new/main.html〉 [인용 2012. 3. 21].

부산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 입법예고. 〈http://blog.naver.com/postit3?Redirect=Log&logNo=110108624485〉 [인용 2012. 5. 12] 〈서점신문 2011년 4월 8일자 제243호 1면 참조〉.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문화위원회보고자료, 2012.7.20.

세계 속의 경기도. 〈http://blog.naver.com/hoho9024?Redirect=Log&logNo=80171568683〉 [인용 2012. 10. 12].